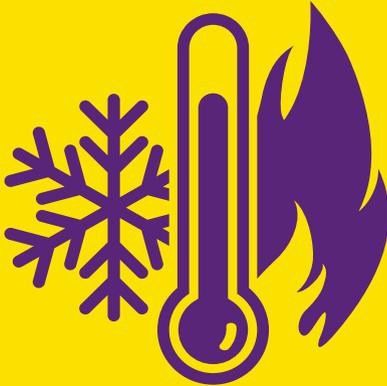


기후, 노동 환경, 유해성·위험성, 법·규제 네 가지 키워드로 짚어본 주요 장면들

뉴스로 돌아본 2025 국내 산업보건 주요 뉴스

정리 대외홍보국



기후

UN이 기후위기를 인류 보건의 주요 위협으로 경고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랭·폭염·호우 등 극한기후가 노동자의 건강과 일터의 안전 기준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

노동부 한랭질환 대책 대상자 확대

청소·경비·위생 업종, 외국인 포함 ...
외국인 고용사업장 숙소·쉼터 150곳 점검
2024.12.

극한기후로 작업 못한 일용직 건설노동자 지원

서울시 하루 최대 4시간 '안심수당' 지급 ...
내국인 일용직 건설노동자 대상
2025.02.

폭염 온도측정 "체감온도 아닌 온열질환 관리 지표로"

습도·복사열 등 인체영향 분석 지표 ...
온열 외 뇌혈관질환 유발 등 '폭염' 정의 확대
2025.02.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점검

노동부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살피 ...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대상
2025.06.

물류센터 야간 노동자 10명 중 7명 "건강에 악영향"

한노보연 실태 보고서, 노동강도 '달리면서 일하는 수준' ... "주간근무 생활임금 보장, 인력충원해 노동강도 낮춰야"
2025.01.

아파도 일한 '항공사 객실승무원' 노동자 평균 5배

노동강도 농업 이주노동자·집배원 수준 ...
"불규칙 근무로 건강 악화, 인력부족해 휴가 못 써"
2025.04.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 '지난해 9천219명'

한해 1만명 눈앞, 75%가 건설·제조업 ...
강득구 의원 "원인 분석 철저히 해야"
2025.09.



노동 환경

항공 객실승무원, 이주노동자, 물류·서비스 노동자 등 고강도·불규칙 노동에 놓인 일터에서, 노동자의 몸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휴식과 안전의 기준은 어떻게 다시 쓰이고 있을까?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의 산업보건 뉴스를 묶어 살펴봤다.
 각각의 뉴스는 개별 사건처럼 보이지만, 함께 놓고 보면 우리 산업현장이 어떤 위험에 대응하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지, 2025년 산업보건의 흐름이 드러난다.

*소개 기사 원본은 매일노동뉴스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음. www.labortoday.co.kr

**“살충제 18년간 쓴 방역노동자, 다계통 위축증은
 업무상 질병”**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사용금지된
 클로로피리포스 기준치 23배 노출
 2024.12.

**‘급식실 폐암 원인’ 건강관리카드 대상물질서
 ‘조리흙’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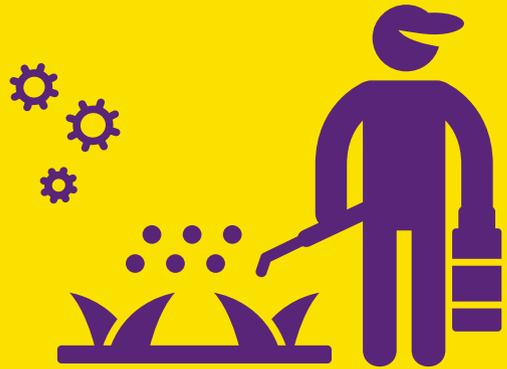
국정과제 포함됐는데 “학계 이견” 이유로 제외 …
 지난달에도 폐암 사망, 총 13명 숨져
 2025.04.

화학물질 피부부식성 사고 5년 새 두 배 증가

총 148건, 올해 사망자 발생 … 김주영 의원 “국민
 생명·안전 위한 화학물질 관리 필요”
 2025.10.

유해성·위험성

살충제·조리흙·분진·화학물질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유해요인이 시간이 흐르며 노동자에게 어떤
 질병과 손상으로 되돌아오고 있을까?



법·규제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시민재해, 위험성평가와
 불시점검 같은 법·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
 도까지 사고와 질병을 줄이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을까?



**산재보험 선 보장제, 노동자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 찬성**

한국노총 산재보험제 개선 실태조사 …
 질병 산재인정 평균 235일 걸려, 단축 필요
 2025.01.

중대재해처벌법 사고 예방 효과에 노사 모두 ‘긍정’

노조 43.7% 사용자 44.4% 긍정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효과 최초 조사
 2025.02.

“시민 죽음 관심 없나” 범위 협소한 중대시민재해

“시설·교통수단 특정해 적용범위 협소” …
 중대재해전문가넷 3주년 “예방책 마련해야”
 2025.02.